

일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이-영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호놀룰루
파견대학	Hawaii Pacific University	파견기간	2015.08.19~2016.05.26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HPU대학교는 호놀룰루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캠퍼스형식이 아닌 다운타운에 건물이 산개되어 있어 수업 별로 각 건물을 찾아가야 하는 형식입니다.
수업	수업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교수님의 역량에 따라 보는 경우도 있고 안보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고사를 3번을 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점수로 인해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우며 학우들끼리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과제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우리학교로 치면 E-class에 해당되는 Blackboard에 공지와 과제 및 추가자료들을 자주 올려주며 교과서도 대부분 준비해 가야 하는데 교과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학교 서점에서 대여를 하거나 중고거래도 많이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HPU는 외국인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로 유명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환학생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이 한번 있으나, 교환학생끼리 모이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이 전부였고 그 후에 학교에서 주관해 교환학생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는 많아서 많은 재미와 덕을 볼 수 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덥고 건조해 무덥다기 보다는 따사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처음에 하와이에 왔을 때 우산을 사서 들고 다녔지만, 하루에도 15번씩 오고 내리는 비에 결국은 우산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달았고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소나기처럼 내리는 비 빼면 맞아도 맞은 것 같지 않은 비가 내려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전	하와이는 사실 다른 미주에 비하면 굉장히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총기소지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머문 2학기 동안 총성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키키 같은 관광지 같은 곳에서는 소매치기나 날치기를 경험한 친구도 있어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곳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거나, 친구의 자동차에 탈 때 짐을 차 안에다가 놓고 내리는 등의 행동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 저는 같이 교환학생 파견간 친구와 집 하나를 빌려서 살았습니다. 하와이는 좁은 섬이고 관광지로 유명한 만큼 물가가 매우 비싸서 렌트비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달에 1800불씩 집을 빌려 두명이 900불씩 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고 가신다면 한달에 600~700불 정도로도 좋은 숙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위에 기술했듯이 하와이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 다운타운 캠퍼스에는 학교식당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식당이나 도시락을 싸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로 외부에서 사먹었는데 한끼에 싸면 5~7불 비싸면 10~13불을 점심식사로 냈습니다.</p>
교통	<p>통학은 버스를 이용했으며 하와이는 미국에서 버스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주로 유명합니다. 버스만으로도 오아후섬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으며, HPU학교에서 학생증을 만들 때 학기 별로 버스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학기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버스이용료는 한번 탈 때마다 2.5불) 학기 종료 후 버스이용료 40불을 학교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성적표를 안 보내주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타야 할 경우에는 Uber라는 어플을 이용해 저렴하게 택시를 탔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만원+40만원	편도로 2번 티켓구매
Fees	버스패스 40불x2	
보험료	80만원	삼성화재에서 민간보험을 들었음
숙소	900x9= 8100\$	렌트비 900불씩 9개월
식비		최대한 하루에 20불 내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30불 정도가 적당
교통비		방학 때 빼고는 학교에서 주는 버스이용권으로 무료로 버스이용 그 외에는 탈 때마다 2.5불

책값		과목마다 너무 상이함 보통 렌트하는데 한 학기에 30불에서 비싼 건 150불까지..
기타1		
기타2		
기타3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백신주사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했던 수강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묶여있어서 하와이에 도착한 뒤 TB테스트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겨우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물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비용계산을 잘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보통 여름날씨라 두꺼운 옷은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만 밤에 쌀쌀해질 때도 많기 때문에 스웨터나 긴 옷도 그래도 몇 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숙소문제도 될 수 있으면 한국에서 다 알아보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와이가서 고생 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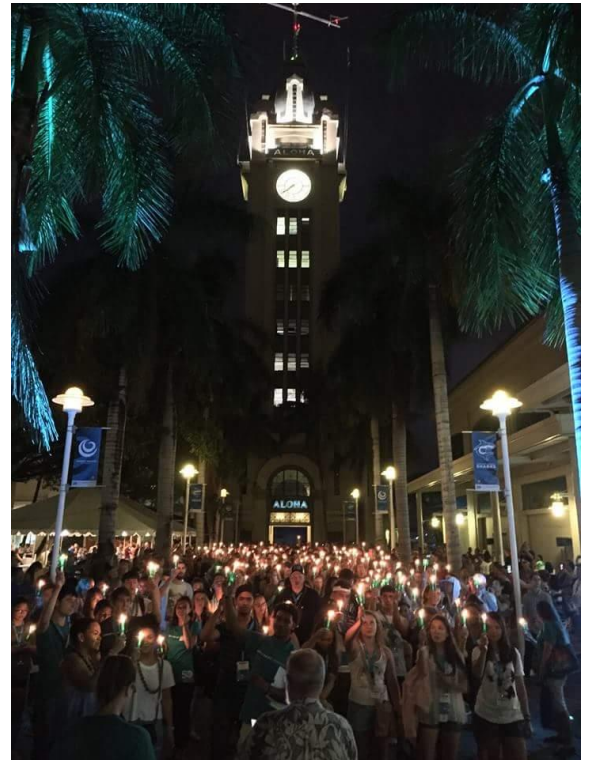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하와이 하면 대부분 휴양지, 트로피컬 파라다이스 등을 상상하시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있던 다운타운은 더러운 거리와 많은 노숙자들, 그리고 거리를 기어다니는 엄청나게 크고 많은 바퀴벌레들 등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물가도 엄청 비쌌고 제가 들었던 수업 중 하나에서는 하와이에 대한 현 사회적인 문제점을 다룬 수업을 들었는데 노조문제, 물문제, 환경문제, 노숙자문제, 약물문제 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하와이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고 마냥 파라다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과 다른 특색을 보이는 해변들과 구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도 많이 했을 정도로 하와이는 또한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만큼 하와이에선 미국 본토에서는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많아서 한국음식점과 한인마트가 많기 때문에 음식 맛이 안 맞진 않았습디다. 물론 한국에서 먹는 만큼 맛있진 않았지만요. 다만 높은 물가를 정말 염두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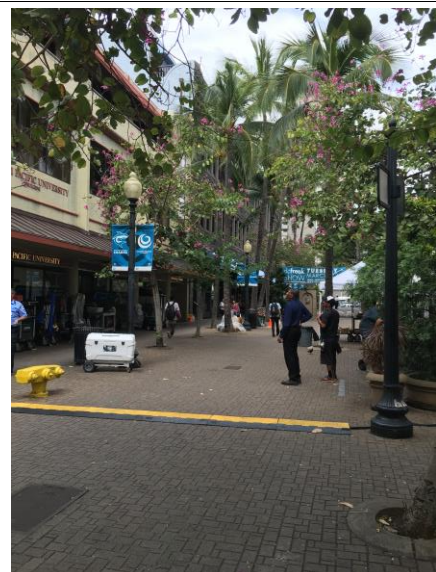
와이키키 바다에서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촛불의식



학교가 있는 다운타운 풍경



학교가 있던 다운타운 풍경(하와이 파이프
오 촬영중)



축구팀 동료들과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



교환학생 친구들과 빅 아일랜드 여행